

여성관련 금기어(禁忌語)의 타당성 및 수용성 지각: 성차를 중심으로

최상진 · 양병창 · 박정열 · 김효창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전래되고 있는 금기어 중에서 여성 관련 금기어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금기어들이 실제로 여성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성차를 중심으로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모두 384명의 남녀 대학생 및 성인들이 총 63개 여성 관련 금기어의 타당성과 수용성 정도를 5점 척도에서 평가하였다. 이러한 여성 금기어들을 내용분석을 통해 의미나 내용 면에서 유사한 것들을 유목화하여 5개의 하위 여성 금기어유목을 추출하였다. 여성관련 금기어의 타당성 평정에서 남녀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임신/출산과 관련한 금기어를 제외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평정하였다. 또한 여성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평정과 수용성 평정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금기어에 대해 타당성 평정치보다는 수용성 평정치가 유의하게 높아, 이는 자기가 관여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다하더라도 금기를 수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기(禁忌, taboo)는 인간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신을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시적 금제수단(禁制手段)이며, 금기하는 구체적 사항을 언어로 서술한 것을 금기어(禁忌語)라 한다(김기설, 1985). 금기는 오늘날에도 사회적, 종교적 사정에 따라 각기 그 원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세계 도처에 이와 유사한 습속(習俗)이 남아 있다(문효근, 1962). 금기

(禁忌)란 ‘금(禁)한다’는 의미와 ‘꺼린다(忌)’는 의미가 합성된 것으로, 신성(神聖)과 부정(不淨)의 두 가지 복합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신성한 것에 접근하는 것을 禁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를 忌하는 양면성의 종합적 의미가 금기이다(김선풍, 1994; 심재기, 1978; 장범성, 1998). 전자는 왕이나 제신(祭神), 영혼 등과 관련된 것이며, 후자의 예로는 월경, 출산, 사망, 사체(死體) 등과

관련된다(북악 편집실, 1978).

금기는 단순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일상적 사고판단과는 다른 차원의 신념체계이며 판단차원이다(최상진, 박정열, 1999). 흔히 신성성(神聖性)이 부여되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물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일상적 판단이 무위화(無爲化)화되는 것처럼 문화적 전통이라는 옷을 입은 금기관련 신념은 심리적으로 신성에 관여되는 신념이나 판단체계처럼 종교적 신성심리가 동일한 기제로 작용한다. 사람들이 종교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이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논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인해 종교는 더욱 신성시화 될 수 있다. 금기도 마찬가지이다. 금기에 의한 금지는 이유불문의 금지이며, 그 기원도 불분명하다(Freud, 1912-13; 김중엽, 1995에서 재인용). 따라서 금기는 감히 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기는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것에 따른다는 성격이 강하다(최상진, 박정열, 1999). 전통은 단순히 지나간 사실을 제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역사와는 달리 '당연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는 옛날부터 따라왔던 전통적인 관습을 어기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이 하는 짓' 등과 같은 감정-자아-고관여적 믿음체계를 그 기저에 깔고 있으며, 따라서 전통을 어기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 물론 대부분의 문화적 전통은 그러한 전통이 왜 생겼으며, 왜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화-맥락적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특정한 활동이나 대상이 전통이라는 심리적 틀 속에 들어오면 그러한 전통이 생겨난

이유나 배경과는 상관없이 전통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일이나 삶으로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심지어는 그러한 전통이 생겨난 이유나 정당성이 더 이상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된 상황에 있어서도 그러한 전통에 대한 인간의 추종은 그대로 지속된다. 이것을 전통의 기능적 자동화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기에서도 적용되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한 번 형성된 금기는 세대를 거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는 금기를 통해 과거 혹은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비정상적인 신념이나 믿음이 어디서 기인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선후 인과론적이지는 않지만 납득할 만한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낭굿을 위해 제주(祭主)가 음식을 장만할 때 반드시 첫 새벽에 첫 장을 보되, 흥정을 하지 말고 물건을 사야 한다. 이때의 금기는 흥정이다. 즉 상행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흥정이 서낭굿을 망치는 부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상업을 비하하고 천하게 여기는 과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김열규, 1978).

단일(單一)하고 순연(純然)하지 못한 것 또한 부정으로 간주되고 금기의 대상이 된다. 서낭굿의 제수(祭需)로 쓰이는 돼지는 흰 반점이나 잡색의 얼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잡색이 섞인 돼지는 제수로 쓰지 말아야 한다. 다색(多色)이 불순감을 자극한다는 사실 때문에 부정으로 간주된 것이다. 불구(不具)나 이형(異形) 그리고 상처(傷處) 등이 부정으로 다루어져 기피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때는 비정상감이 부정감과 연결되어 있다(김열규, 1978).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불구자

(不具者)나 신체장애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한 가지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금기에는 과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생각, 사상, 믿음 등이 용해되어 있으며, 공포의 대상으로부터의 보호(김기설, 1985), 경제적인 기능성(김선풍, 1994)이 있다. 그러나 금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기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불문법으로 사회 도덕률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점이다(김선풍, 1994). 따라서 이러한 금기를 어겼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책감을 경험하며, 이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전통적으로 한국민속의 현장에서 부정이 금기의 대상이 되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죽음과 여성(김열규, 1978)이 있다. 이는 여성이 월경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그것이 부정(不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금기어를 분석한 최상진과 박정열(1999)의 연구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금기어가 남성과 관련된 금기어들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그 내용도 여성은 주로 채수 없는 일이나 재앙을 몰고 오는 원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남성은 귀한 존재로서 하찮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새벽에 여자가 오면 채수 없다”, “여자가 날 뛰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맨 먼저 과일을 따면 그 이듬해 많이 열리지 않는다”, 혹은 “여자가 문지방에 앉으면 집안에 채수가 없다” 등 이러한 말이 생겨난 이유나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전해져 오면서 여성의 행위를 제약하는 금기들이 존재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금기를 사용하여 행위를 제재하여 왔다.

본 연구는 여성 관련 금기어(禁忌語)들에 대해 성차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금기가 실제로 여성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와 충남대학교에서 교양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수는 총 384명으로 남학생이 123명, 여학생이 154명, 남자성인이 56명, 여자성인이 51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남학생이 21.25세, 여학생이 20.12세, 남자성인이 49.98세, 여자성인이 47.02세였다.

조사도구

예비조사에서 여성 관련 금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각종 문헌에서 여성과 관련된 금기어 153개를 찾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 각각의 금기어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63개의 여성 관련 금기어를 선정하였으며, 이 문항들로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서의 질문 내용은 먼저 각각의 여성 관련 금기어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여성 금기어의 타당성)를 5점 척도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서, 여성에게는 본인이 특정한 행

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와 관련된 금기어를 인용하여 주변의 중요한 인물이 그 행위를 제지할 때, 그에 따를 것인지의 여부(여성 금기어의 수용성)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가척도는 타당성과 수용성 모두 절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63개 여성 관련 금기어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의미나 내용 면에서 유사한 것들을 유목화하였다. 그 결과 이들 63개 금기어들을 ‘행동과 관련한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 ‘생산과 관련한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 ‘일반적인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 ‘임신/출산에 대한 금기’, ‘어머니에 대한 금기’ 등 5개의 여성 금기유목으로 구성하였다. 유목화의 과정에서 8개의 문항은 기타로 처리되어 유목에서 제외되었다. 다음으로 이들 유목과 그 유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금기어들에 대한 타당성 평정에서 남녀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여성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하여 금기어들에 대한 타당성 평정과 수용성 평정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결과는 전체 63개 여성 관련 금기어들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의미나 내용이 유사한 문항들을 묶은 유목화를 중심으로 제시하

표 1. 행동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 금기어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집단간 차이비교

| 하 위 문 항 | 전체 | 남자 | | 여자 | | t 값 |
|-----------------------------------|------|--------------|--------------|------|------|---------|
| | | 학생 | 성인 | 학생 | 성인 | |
| 남자의 다리나 허리를 여자가 타넘으면 재수 없다. | 1.84 | 2.14 1.96 | 1.57 2.55 | 1.47 | 1.86 | 5.77*** |
| 여자가 문지방에 앉으면 집안에 재수가 없다. | 1.72 | 1.92 1.80 | 1.54 2.20 | 1.47 | 1.76 | 3.96*** |
| 여자가 밤에 빨래(방망이질)하면 동네 처녀가 죽는다 | 1.39 | 1.52 1.48 | 1.28 1.62 | 1.23 | 1.42 | 3.35** |
| 아침에 여자가 남자의 호주머니를 뒤지면 그 날 재수 없다. | 1.67 | 1.95 1.73 | 1.42 2.44 | 1.25 | 1.96 | 5.20*** |
| 여자가 배추 뿌리 먹으면 소박맞는다. | 1.55 | 1.69 1.66 | 1.43 1.76 | 1.34 | 1.71 | 3.21** |
| 여자가 날뛰면 집안이 망한다. | 2.24 | 2.79 2.57 | 1.78 3.27 | 1.69 | 2.02 | 8.96*** |
| 남자가 길을 떠날 때 여자가 앞을 가로질러 가면 재수 없다. | 1.70 | 1.98 1.87 | 1.46 2.22 | 1.32 | 1.88 | 5.40*** |
| 바늘을 벽에 꽂아 놓으면 남편이 앓는다. | 1.57 | 1.69 1.67 | 1.47 1.75 | 1.37 | 1.76 | 2.55* |
| 밤에 거울 보면 소박맞는다. | 1.56 | 1.82 1.80 | 1.33 1.88 | 1.33 | 1.35 | 5.29*** |
| 행동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어 전체 | 1.69 | 1.94 1.83 | 1.47 2.19 | 1.38 | 1.73 | 6.85*** |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생산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 금기어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집단간 차이비교

| 하 위 문 항 | 전체 | 남자 | | 여자 | | t 값 |
|----------------------------------|------|--------------|------|--------------|------|---------|
| | | 학생 | 성인 | 학생 | 성인 | |
| 여자가 맨 먼저 과일을 따면 그 이듬해 많이 열지 않는다. | 1.43 | 1.55 1.45 | 1.77 | 1.32 1.20 | 1.68 | 2.92** |
| 참외밭에 여자가 들어가면 참외가 곤다. | 1.38 | 1.51 1.49 | 1.55 | 1.26 1.17 | 1.55 | 3.35** |
| 칠월칠석날 딸이 논밭에 나가면 흉년이 든다. | 1.54 | 1.69 1.64 | 1.80 | 1.42 1.38 | 1.53 | 3.22** |
| 여자가 바느질 그릇이 지지분하고 더러우면 가난해진다. | 2.20 | 2.43 2.50 | 2.27 | 2.01 2.02 | 1.98 | 3.68*** |
| 소 새끼 난 뒤에 여자가 보면 나쁘다. | 1.56 | 1.76 1.64 | 2.04 | 1.39 1.27 | 1.75 | 4.35*** |
| 생산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어 전체 | 1.62 | 1.79 1.75 | 1.87 | 1.48 1.41 | 1.71 | 4.37*** |

** $p < .01$, *** $p < .001$

었다. 표 1은 여성 관련 금기어 중에서 여성의 특정한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변사람이나 남성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나 화를 경계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금기어들을 ‘행동과 관련한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어’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금기어들의 타당성에 대해 남녀의 성차를 비교하였다. 우선 이들 금기어들의 타당성에 대한 평정치를 보면, 여자 응답자들의 경우 9개 문항 모두에서 1점 대의 낮은 타당성 평정치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들의 경우에서도 2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점 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들 금기어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문항들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차이검증에서는 9개 하위 문항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남자, 여자)과 세대(학생, 성인)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F(1, 372)=36.82, p<.001$)과 세대($F(1, 372)=22.95, p<.001$)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F(1, 372)=0.00, p>.90$)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는 여성 관련 금기어 중에서 생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생산의 금기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실의 감소를 우려하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여자가 바느질 그릇이 지지분하고 더러우면 가난해진다”는 2점대로 평정되었으며, 나머지 금기어들은 1점대로 평정되었다. 이들 금기어들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차이검증에서는 5개 하위 문항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유목 전체의 평정치도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F(1, 379)=10.88, p<.01$)과 세대($F(1, 379)=7.75, p<.01$)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F(1, 379)=1.39, p>.20$)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이 여성 관련 금기어 중에서 여성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주변사람이나 남성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나 화를 경계하는 내용인 반면, 표 3은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다든지, 여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과 같이 여성이 개입되어 그 결과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들 금기어들

표 3. 기타 일반적인 여성 부정성과 관련된 금기어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집단간 차이비교

| 하 위 문 항 | 전체 | 남자 | | 여자 | | t 값 |
|--------------------------------|------|------|------|------|------|---------|
| | | 학생 | 성인 | 학생 | 성인 | |
| 새벽에 여자가 오면 재수 없다. | 1.52 | 1.70 | 1.84 | 1.36 | 1.70 | 3.89*** |
| 아침에 여자와 말다툼을 하든지 욕을 먹으면 재수 없다. | 2.12 | 2.43 | 2.91 | 1.85 | 2.45 | 4.76*** |
| 장가가는 배에 아침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 없다. | 1.72 | 1.95 | 2.20 | 1.53 | 1.94 | 4.35*** |
| 여자의 옷을 고쳐서 남자 옷을 만들면 재수 없다. | 1.54 | 1.74 | 1.95 | 1.36 | 1.71 | 4.54*** |
| 꿈에 여자가 와서 자면 구성을 듣는다. | 1.59 | 1.76 | 1.79 | 1.44 | 1.94 | 3.43** |
| 꿈에 여자를 보면 재수 없다. | 1.51 | 1.68 | 2.07 | 1.36 | 1.84 | 3.56*** |
| 꿈에 재집과 서로 싸우면 병이 생긴다. | 1.54 | 1.68 | 1.88 | 1.42 | 1.75 | 3.17** |
| 꿈에 여인을 불러 잡으면 크게 흥하다. | 1.58 | 1.75 | 1.96 | 1.43 | 1.88 | 3.60*** |
| 꿈에 왕비가 불러 술 먹이면 흥하고 병든다. | 1.54 | 1.65 | 1.64 | 1.45 | 1.75 | 2.29* |
| 정월달에 여자가 와서 울면 재수 없다. | 1.80 | 2.10 | 2.47 | 1.55 | 1.98 | 5.15*** |
| 기타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어 전체 | 1.64 | 1.85 | 2.07 | 1.46 | 1.86 | 5.47*** |

* $p < .05$, ** $p < .01$, *** $p < .001$

의 타당성에 대한 평정치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1 점 대에 머물러 있는 바, 이 역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금기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문항들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차이검증에서는 10 개 하위 문항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F(1, 373)=17.34, p<.001$)과 세대($F(1, 373)=32.47, p<.001$)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효과($F(1, 373)=1.97, p>.10$)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는 여성 관련 금기어 중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어들은 다른 유목의 금기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성 평정치를 보이고 있다. 표 1, 표 2, 표 3에 제시된 결과들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타당성 평점 점수가 높았으나, 임신/

출산에 대한 금기어에서는 전체 20개의 문항에서 일부 문항(4개 문항)을 제외하고 타당성 평정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유목에서의 전체 평정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임신/출산에 대한 금기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금기들 보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며, 또한 이들 금기에 대한 성차도 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F(1, 361)=2.44, p>.10$)은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대($F(1, 361)=8.37, p<.01$)에 있어서는 주효과는 나타났다. 성별과 세대에 대한 상호작용효과($F(1, 361)=2.49, p>.10$)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관련한 금기는 대부분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금기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11개 금기어들에 대한 타당성 평정치 역시 앞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한 문항을 제외하고 남/

표 4.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어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집단간 차이비교

| 하 위 문 항 | 전체 | 남자 | | 여자 | | t 값 |
|--|-----|--------------|------|--------------|------|--------|
| | | 학생 | 성인 | 학생 | 성인 | |
| 임신한 여자가 남을 미워하거나 흉보면 자기 어린애도 그렇게 된다. | 277 | 2.69 2.75 | 2.54 | 2.85 2.91 | 2.69 | -1.33 |
| 임신한 여자가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를 닮은 애를 낳는다. | 198 | 2.03 2.01 | 2.09 | 1.98 1.88 | 2.06 | .98 |
| 임신 중에 닭 잡아먹지 않는다. | 210 | 2.24 2.11 | 2.54 | 1.98 1.87 | 2.31 | 2.22* |
| 어린애 뱀 사람이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 발이 붙는다. | 175 | 1.84 1.79 | 1.95 | 1.67 1.56 | 2.00 | 1.53 |
| 임신 십 개월에는 잔치에 안 나간다. | 213 | 2.19 2.10 | 2.39 | 2.08 2.07 | 2.10 | .98 |
| 어린애 낳고 사흘 안에 동냥 주지 않는다. | 195 | 1.97 1.84 | 2.23 | 1.93 1.89 | 2.06 | .33 |
| 어린애 낳고 삼칠일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어린애에게 해롭다. | 250 | 2.37 2.19 | 2.78 | 2.61 2.67 | 2.44 | -1.88 |
| 산후 삼칠일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긴다. | 229 | 2.26 2.09 | 2.63 | 2.32 2.28 | 2.45 | -.50 |
| 어린애 낳고 삼칠일 안에는 닭이나 짐승 같은 것을 잡지 않는다. | 253 | 2.55 2.22 | 2.27 | 2.50 2.40 | 2.82 | .39 |
| 어린애 낳을 때 닭을 잡으면 그 아이가 부정탄다. | 218 | 2.30 2.05 | 2.86 | 2.07 1.94 | 2.47 | 2.02* |
| 해산 후에 계란 쪄 먹으면 나쁘다. | 192 | 2.02 1.90 | 2.29 | 1.83 1.78 | 2.00 | 1.89 |
| 어린애 낳고 다듬이질하면 불길하다. | 189 | 1.94 1.76 | 2.34 | 1.84 1.77 | 2.06 | .97 |
| 어린애 낳고 초상집에 가면 해롭다. | 262 | 2.67 2.42 | 3.21 | 2.58 2.50 | 2.84 | .66 |
| 아이를 낳고 가축을 잡으면 그 아이에게 불길하다. | 237 | 2.45 2.17 | 3.05 | 2.31 2.18 | 2.70 | 1.10 |
| 사람이 죽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빨래하면 해롭다. | 184 | 1.91 1.82 | 2.11 | 1.77 1.71 | 1.96 | 1.38 |
| 한 사람이 한 해에 해산구완을 한 번 이상 하면 해롭다. | 204 | 1.97 1.94 | 2.04 | 2.10 2.13 | 2.02 | -1.14 |
| 산모의 국 끓일 때 미역을 뜯어먹으면 어린애가 어머니의 젖을 깨문다. | 170 | 1.72 1.67 | 1.84 | 1.68 1.63 | 1.80 | .53 |
| 어머니 젖을 짐승에게 먹이면 젖이 안 난다. | 184 | 1.87 1.83 | 1.96 | 1.82 1.78 | | .51 |
| 꿈에 아내가 임신하면 밖에 사사로운 정이 있다. | 181 | 1.93 1.84 | 2.13 | 1.71 1.73 | 1.94 | 2.26* |
| 임신 중에 오리알을 먹으면 손가락이 붙은 아이를 낳는다. | 163 | 1.80 1.72 | 1.98 | 1.49 1.44 | 1.64 | 3.33** |
|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어 전체 | 208 | 2.13 2.01 | 2.40 | 2.03 2.01 | 2.12 | 1.15 |

* $p < .05$, ** $p < .01$

녀, 학생/성인 모두에서 1점 대에서 유지되고 있음으로 보아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들 문항들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차이검증에서는 11개 하위 문항 중에서 8개 문항에

표 5. 어머니와 관련된 금기어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집단간 차이비교

| 하 위 문 항 | 전체 | 남자 | | 여자 | | t 값 |
|--|------|------|------|------|------|--------|
| | | 학생 | 성인 | 학생 | 성인 | |
| 두 손을 목에 베고 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1.49 | 1.59 | 1.41 | 1.58 | 1.52 | 2.26* |
| 머리를 아랫목으로 두고 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1.51 | 1.58 | 1.44 | 1.53 | 1.57 | 1.80 |
| 머리를 풀고 다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1.41 | 1.52 | 1.32 | 1.43 | 1.42 | 2.62** |
| 엄지손가락에 봉숭아물들이면 아버지는 오래 살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다. | 1.40 | 1.46 | 1.35 | 1.39 | 1.41 | 1.43 |
| 반지를 둘째손가락에 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1.38 | 1.48 | 1.30 | 1.40 | 1.47 | 2.38* |
| 베개를 세워 놓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1.44 | 1.55 | 1.34 | 1.53 | 1.55 | 2.64** |
| 날(빈)다듬이질을 하면 어머니 마음이 상하게 된다 | 1.71 | 1.79 | 1.64 | 1.68 | 1.88 | 1.55 |
| 밥 사발을 포개 놓으면 부모가 돌아가신다. | 1.53 | 1.66 | 1.42 | 1.63 | 1.64 | 2.73** |
| 어린애가 실없이 땅을 파면 부모가 죽는다. | 1.47 | 1.55 | 1.39 | 1.52 | 1.40 | 2.12* |
| 실폐에 실이 하나도 없으면 부모가 험벗고 돌아가신다. | 1.50 | 1.64 | 1.38 | 1.53 | 1.50 | 2.95** |
| 날 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1.42 | 1.55 | 1.30 | 1.42 | 1.42 | 3.06** |
| 어머니와 관련된 금기어 전체 | 1.47 | 1.58 | 1.38 | 1.52 | 1.51 | 2.97** |

* $p < .05$, ** $p < .01$

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 유목의 전체 평정치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F(1, 371)=6.85, p<.01$)과 세대($F(1, 371)=6.33, p<.05$)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F(1, 371)=.03, p>.80$)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은 여성 관련 금기어의 타당성 평정치를 유목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행동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 금기어’, ‘생산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 금기어’,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여성 부정성과 관련된 금기어’는 공통적으로 여성의 부정성(不淨性)과 관련되어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

적으로 여성은 월경과 출산과 관련하여 그것이 부정(不淨)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꺼리는(忌) 대상이 되어왔다(김열규, 1978). 여성 부정성에 대한 3개 유목들에 대한 타당성 평정치는 모두 1점 대로서 이러한 금기들에 대하여 남녀 모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 문항들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차이검증에서는 3개 유목, 24개 하위 문항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유목들 모두 성별과 세대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어’는 단일 유목으로

표 6. 여성 관련 금기어 하위 유목의 타당성에 대한 남녀 집단간 차이비교

| 여성 관련 금기어에 대한 하위 유목 | 전체 | 남자 | | 여자 | | t 값 |
|-------------------------|------|------|------|------|------|---------|
| | | 학생 | 성인 | 학생 | 성인 | |
| 행동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 금기어 | 1.69 | 1.94 | 1.47 | 1.83 | 1.73 | 6.85*** |
| 생산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 금기어 | 1.62 | 1.79 | 1.48 | 1.75 | 1.71 | 4.37*** |
| 기타 일반적인 여성 부정성과 관련된 금기어 | 1.64 | 1.85 | 1.46 | 1.75 | 1.86 | 5.47*** |
|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어 | 2.08 | 2.13 | 2.03 | 2.01 | 2.12 | 1.15 |
| 어머니와 관련된 금기어 | 1.47 | 1.58 | 1.38 | 1.52 | 1.51 | 2.97** |

** $p < .01$, *** $p < .001$

는 가장 많은 20개의 문항을 차지하였다. 이는 그만큼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것의 중요성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유안진, 1990).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어에 대한 타당성 평정치 평균값 자체로만 볼 때는 2.08로 대체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유목들에 비해서는 그 평정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금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금기들보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이들 금기사항에 대해서는 따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어머니와 관련된 금기어는 앞에서 언급한 여성 부정성 금기와 임신/출산의 금기와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어머니와 관련된 금기어에서 여성은 자신이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야기하는 부정한 존재도 아니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감내하거나 행동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금기어에서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최상진, 박정열, 1999).

이제까지 제시된 결과들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성과 관련된 금기들에 대하여 ‘지금 현

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금기를 얼마나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타당성의 문제)를 남녀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금기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그것의 사실여부, 합리성 여부를 떠나 그것이 실제 사람들의 행동과 인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금기는 단순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일상적 사고판단과는 다른 차원의 신념 체계이며 판단차원이며, 하나의 전통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것에 따른다는 성격이 강하다(최상진, 박정열, 1999). 따라서 금기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 즉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타당성)의 측면과 그것을 얼마나 따를지(수용성)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7은 여성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와 관련된 금기어를 인용하여 주변의 중요한 인물이 그 행위를 제지할 때, 그 지시를 수용하고 따를 지에 대한 여부(여성 금기어의 수용성)를 앞의 타당성 평정치와 비교한 결과표이다. 전체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여성 관련 금기어 하위 5개 유목 모두에

표 7. 여성 관련 금기어 하위 유목의 타당성 평정치와 수용성 평정치에 대한 차이비교

| 여성 관련 금기어에 대한 하위 유목 | 타당성 | | 수용성 | | t 값 |
|-------------------------|------|------|------|------|----------|
| | 여학생 | 여자성인 | 여학생 | 여자성인 | |
| 행동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 금기어 | 1.38 | 1.47 | 1.52 | 1.63 | -3.25** |
| 생산과 관련된 여성 부정성 금기어 | 1.41 | 1.48 | 1.54 | 1.64 | -2.90** |
| 기타 일반적인 여성 부정성과 관련된 금기어 | 1.33 | 1.46 | 1.47 | 1.57 | -2.58* |
|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어 | 2.01 | 2.03 | 2.25 | 2.27 | -5.77*** |
| 어머니와 관련된 금기어 | 1.34 | 1.38 | 1.72 | 1.71 | -5.54*** |

* $p < .05$, ** $p < .01$, *** $p < .001$

서 금기내용의 타당성 평정치와 수용성 평정치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비록 타당성 평정치와 수용성 평정치가 낮다고는 해도 본인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행위와 관련된 여성관련 금기 속담을 인용하여 그 행위의 중단을 지시하였을 경우, 비록 그 금기가 타당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를 외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러한 지시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어와 어머니와 관련된 금기어에서는 각 유목의 전체 하위 문항에서 타당성과 수용성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이제까지 제시된 결과들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성과 관련된 금기들에 대하여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타당하게 생각하는지와 따를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비록 타당성 평정치와 수용성 평정치의 차이를 통해서 금기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인 의미에서의 유의미한 차이일 뿐이다. 즉 수용성 평정치가 타당성 수용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긴 했지만, 수용성 그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1점 대의

낮은 평정치를 나타내 보였다. 마찬가지로 타당성 평정치 역시 임신/출산과 관련한 금기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1점 대의 낮은 평정치를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금기들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 영향력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끝으로 응답자 자신 혹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여자는 어떠한 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파악해 보았다.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여자는 어떠한 야 한다는 것은 바로 여성과 관련된 금기에 내재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타당성과 수용성의 문제와 더불어 금기 연구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표 8은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여자는 어떠한 야 한다’고 생각되는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남녀별로 나누어 제시한 결과이다. 우선 남녀 모두에게 있어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보이는 것은 ‘여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조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체 빈도에서 두 번째와 세

표 8.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여자는 어떠해야 한다'에 대한 남녀 응답결과

| 유 | 목 | 남자(학생/성인) | 여자(학생/성인) | 전체 |
|-------------------------------|---|-------------|-------------|-----|
| 여자는 품행이 단정/조신해야 한다. | | 60(51/9) | 59(56/3) | 119 |
|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 | | 30(27/3) | 51(47/4) | 81 |
|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한다/삼편을 잘 만나야 한다. | | 20(15/5) | 52(44/8) | 72 |
|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한다/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 | 32(25/7) | 25(22/3) | 57 |
| 여자는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 | | 27(24/3) | 5(5/-) | 32 |
| 여자는 나서면 안된다/꼭소리가 크면 안된다. | | 14(13/1) | 17(15/2) | 31 |
| 여자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 | 14(13/1) | 15(15/-) | 29 |
| 첫 손님이 여자면 재수없다. | | 3(3/-) | 13(11/2) | 16 |
| 여자는 현명/똑똑해야 한다. | | 8(5/3) | 8(8/-) | 16 |
| 기타 | | 108(84/24) | 107(87/20) | 215 |
| 전체 | | 316(260/56) | 352(310/42) | 668 |

번제를 차지한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와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한다/삼편을 잘 만나야 한다'에서는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두 유목 모두에서 여자 응답자들이 남자 응답자들보다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시집을 잘 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남자 응답자들은 여자 응답자들에 비해 '여자는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표 8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여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얼굴이 예쁘고, 시집을 잘 가고, 살림을 잘하고, 남편에 순종하고, 나서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여자에 대해 수동적인 존재, 남자에 의해 이끌려 가는 존재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여성 관련 금기어에서 나타난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금기는 여성의 '부정성(不淨性)'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표 8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의 부정성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와 '여자는 현명/똑똑해야 한다'는 결과에서는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볼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전래되고 있는 금기어 중에서 여성 관련 금기어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금기어들이 실제로 여성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성차를 중심으로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금기의 구성형태를 보면, "A가 B하면, C가 D한다"와 같은 조건절과 그것의 결과에 해당하는 주절의 복문을 기본문형으로 하여, 국어문장의 일반적인 특징인 주어생략에 의해 "B하면 D한다"와 같은 축약형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런 금기어에는 인간의 생활을 보다 안락하게 누리하고자 하는 현실적 욕구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일정한 행동의 금기로 성취하려는 것이다(심재기, 197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성 금기어의 구조 역시, 주절 부분이 "여자가"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생략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에 더해 "남자가"로 시작하여 "여자와(를) ~을 하면" "~~한다"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금기행위의 위반으로 인한 결과를 보면, 여자가 이러한 금기 행위를 위반할 경우 여성 본인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거나, 여자로서 인해서 남자나 그 집안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여성 부정성의 금기는 여성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특정한 불행이 야기되는 점과 여성 자체의 부정적 속성으로 인해 단지 여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행이 야기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 금기어들을 내용분석을 통해서 의미나 내용 면에서 유사한 것들을 유목화하여, '행동과 관련한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 '생산과 관련한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 '일반적인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 '임신/출산에 대한 금기', '어머니에 대한 금기' 등 5개의 여성 금기유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여성 금기어들에 대한 타당성 평정에서 남녀 응답자 모두 2점대 이하의 평정치를 보임으로서, 여성 금기어들이 그럴만한 근거가 없는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많은 여타의 금기어들이 그러하듯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여성관련 금기어들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 의미들이 희석되어 가고 있고, 또한 여성의 부정성으로 인해 여성을 금기시하던 많은 영역들에서, 예컨대, 선박업계나 철강업계 등, 여성 금기가 파괴되어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의 특성상, 각각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관여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도 평정치가 낮은 이유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5개의 여성 금기유목 중 '행동과 관련한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 '생산과 관련한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 '일반적인 여성 부정성에 대한 금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금기' 등 4개의 여성 금기유목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이들 4개의 여성 금기유목에서 일관되게 여자보다 남자 응답자의 타당성 평정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여성의 부정성과 관련된 3가지 금기유목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임신/출산에 대한 금기'는 여타 4개의 유목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금기는 타당성 평정치가 유일하게 남/녀, 학생/성인 모두에서 2점대의 평정을 보여, 다른 유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들 금기의 타당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남녀간의 성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건강한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태교와의 관계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부녀자가 임신을 하게되면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을 도와 출산 후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부정하다고 믿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행동을 조심하였다. 설령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도 이런 금기들이 평소애 합리성이 없다고 무시하고 있다해도, 막상 자신이 임신을 하거나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임신을 하게 되면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보다 건강하고 훌륭한 자식을 출산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이러한 금기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서혜경, 1981; 윤여송, 1989). 전통적인 금기 식품도 임신기에 가장 그 종류가 많다(모수미, 1966).

이에 더해, 여성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평정과 수용성 평정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여성 관련 금기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보면, 하위 5개 유목 모두에서 금기내용의 타당성 평정치보다 수

용성 평정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록 그러한 금기가 타당성은 없다하더라도 금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성 본인이 저야할 부담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부정성과 관련된 금기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는 없다하더라도, 사회 규범상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임신/출산의 금기도 태어나 산모, 어린아이의 건강/안녕과 관련된 것으로,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먹인다거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병이 난다거나 해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기어들은 산모나, 태아,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해도, 태교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이를 무시하는대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과거부터 전래되어 오고 있는 여성관련 금기어에 대한 타당성과 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금기어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수용성의 정도도 미약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여성관련 금기가 실제 생활에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하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금기는 ‘당연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는 옛날부터 따라왔던 전통적인 관습을 어기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이 하는 짓’ 등과 같은 감정 자아 고관여적 믿음체계를 그 기저에 깔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금기를 어기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타당성 평정보다 수용성

평정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일반 생활 현장에서 여성관련 금기어들은 사안에 따라서 여전히 여성의 행위를 제어하는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부터 전래되어 오고 있는 여성관련 금기어들에 대한 타당성과 수용성에 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금기어들에 대한 믿음이 오늘날에 와서는 약해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확인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의 부정성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시대에 따른 새로운 변화상을 엿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기설 (1985). 영동지방의 생업과 관련된 금기어 연구. 민속학회 민속학 전국대회 요지, 191-197.
- 김선풍 (1994). 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 어문논집, 23,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회, 53-68.
- 김열규 (1978). 금기의 사상: 부정의 금기를 중심으로. 북악, 29, 210-216.
- 모수미 (1966). 한국 농촌의 식품금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 15-21.
- 문효근 (1962). 한국의 금기어. 인문과학, 8,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53.
- 북악 편집실 (1978). 금기 개관: 특집 II 금기. 북악, 29, 198-209.
- 서혜경 (1981). 전북지역의 금기식품에 관한 연구:

- 임신기를 중심으로. 기전여전논문집, 2, 153-160.
- 심재기 (1978). 언어와 금기. 한국 전래금기담을 중심으로. 복악, 29, 217-225.
- 유안진 (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여송 (1989). 전남지방의 産育俗에 나타난 금기. 전남대어문논총, 10·11, 285-300.
- 장범성 (1998). 중국 민속 금기의 언어적 특징. 중국학연구, 14, 499-523.
- 최상진, 박정열 (1999). 금기어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심층심리.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100-114.
- Freud, S. (1995). 토템과 타부 [*Totem and taboo. Standard Edition, 13*, 1-161]. (김종업 역). 서울: 문예마당. (원전은 1912-13에 출판)

The perception of reasonableness and acceptance on female-related tabooed words

Sang Chin Choi · Byeong Chang Yang · Cheong Yeul Park · Hyo Cha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sonableness and acceptance on female-related tabooed words focused on sex difference. A total of 384 undergraduate students and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63 female-related Korean tabooed words. Contents analysis was administered and the major 5 categories were extracted. The finding showed that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considered the female-related tabooed words as not reasonable any more. However the male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ly high score on reasonableness of the tabooed words compare to female except one subcategory, pregnancy/delivery. Furthermore, the female participants showed higher score on acceptance of the tabooed words than reasonableness. Finally, all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Korean culture.